

---

# 2022년 제21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2. 5. 20. ~ 5. 2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5. 20.	시청률	0.002

### 【총 평】

‘디지털 금융 혁신, 새 정부 미래 금융정책은?’편에서는 디지털 변환기를 맞아 미래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의 방향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새 정부의 미래 금융정책을 알려주었다. 특히 새 정부의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국정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이 최근 핫이슈가 된 비트코인 사례와 식용유 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를 막기 위한 수급상황 관리 등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 설명한 부분이 돋보였다.

알뜰신잡의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무료 보급 신청하세요.’는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TV 무료 보급에 대해 소개했다. 또 해당 TV의 주요기능, 장애인별 편의 기능, 무료 보급 대상과 절차에 대해 전했다.

### 【구성 및 내용】

경제&이슈는 새 정부의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미래 금융 전략을 다루었다.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한 자율성 제고와 이를 기반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은 모든 것을 수치화해 컴퓨터에 담을 수 있어 비대면, 원격 확대가 가능해진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 분야의 데이터 인프라, 금융보안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디지털 금융혁신의 목표는 크게 5가지를 내세웠는데, 첫째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둘째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 원칙 구현, 셋째 디지털 환경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넷째 디지털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다섯째 금융회사 디지털 플랫폼 역량 확충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규율체계 구축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책임감 있는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한다.

새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정과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융서비스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기대한다. 세부적으로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를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한다. 또한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 및 주기적 점검을 추진하고 전 은행에 모바일 OTP를 도입 및 활용을 유도하여 해킹을 예방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한다.

알뜰신잡은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무료 보급을 소개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TV 15,000대를 무료로 보급한다. 신청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 등이며, 신청방법은 6월 7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5. 20.	시청률	0.002

## 【총 평】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조치로 야외 활동이 많아진 국민들을 위해 다시 열리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했다. 활짝 열린 '문화공간' 시민들 발길 복적, 3년 만에 '궁중문화축전' 다양한 체험 즐겨,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 명품 계곡길 발길 이어져 등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공감대를 높였다. 이밖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만든 '휠체어 지도' 관심 끌어, 청춘을 위로하는 지자체 '청년 여가생활' 지원, 한강의 기적을 이끈 '파독근로자 숙원 쉼터 강원도 양구에 조성' 등 다양한 소식으로 흡입력을 높였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는 의례인 '수연례', AI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스마트미술관'을 다룬 '최첨단 과학기술 활용한 '우리동네 미술관' 등장'을 방송했다.

## 【구성 및 내용】

- 활짝 열린 '문화공간' 시민들 발길 복적  
서울 광장의 '책 읽는 야외 도서관' 풍경은 충분히 이색적이었고 볼거리가 풍부했다. 또 다양한 문화 행사를 비롯해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공연 현장 소개, 앞으로 있을 서커스 공연까지 미리 공지해 기대감을 높였다.
- 3년 만에 '궁중문화축전' 다양한 체험 즐겨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5대 궁궐을 비롯해 종묘와 사직단에서 펼쳐진 '궁중문화축전'을 소개했는데, 가마 모양을 본뜬 쉼터나 벽사의식을 본뜬 놀이 등 고궁이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대학생들이 만든 '휠체어 지도' 관심 끌어  
장애인 이동 차별 금지를 위한 '휠체어 지도'를 만드는 대학생은 공익성이라는 취지에 적합한 소식이었다. 특히 인근 상점을 사진과 기호로 표기한 지도를 만든 대학생들의 활동을 담았는데, 선한 영향력을 전한 대학생들의 모습이 훈훈했다.
- 지자체 '청년 여가생활' 지원사업 활기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세종시 청년 휴가비 지원 소식을 전했는데, 전남 청년문화 복지카드 소식을 함께 엮어 전한 점이 돋보였다.
-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 명품 계곡길 발길 이어져  
명품 계곡길을 소개했는데, 희귀곤충과 다양한 식물 그리고 계곡 물소리 등 현장음을 살린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 "건강하게 사세요" 이웃의 정이 담긴 수연례  
의왕시 동백아파트 부녀회원들이 수연례를 진행하는 모습을 소개했는데, 각박한 요즘 어르신에게 예를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5. 21.	시청률	0.000

### 【총 평】

국악의 세계화 '한류국악그룹 - 퀴'편은 국악 전공 연주자들이 모여 세계에 우리나라 음악을 알리고 있는 글로벌 국악그룹 '퀴'의 박진영 단장이 출연해 우리나라 국악의 매력과 세계인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민요, 가요, OST, 팝 뿐 아니라 공연하는 나라의 국가와 가요 등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국악을 알리고 있는 퀴의 공연 모습이 몰입도를 높였다. '퀴'는 해외공연에서 해외 팬들로부터 '어메이징'과 '판타스틱'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에서 한국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녀의 집'에 공연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안무에 맞춰 답가를 해 주었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공연은 10분 만에 매진되었고, 공연 결과가 좋아서인지 현지 외교관과 멤버가 결혼했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는 '난타처럼 드럼 치는 걸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영상편지를 받고 타악기 퍼포먼스 팀 '화려'를 찾아가 한국전통 장단으로 북 치는 방법을 배우고, 방탄소년단의 곡에 맞춰 난타의 매력을 알려 준 구성이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생생 K컬처에서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K-콘텐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한류국악그룹 - 퀴를 소개했다. 해외 공연 영상을 통해 한류 열풍의 신형 강자로 떠오르는 K국악, 한국 전통 국악이 세계에 울려 퍼지는 현장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 글로벌 국악그룹 '퀴'의 박진영 단장은 퀴는 국악 전공 연주자들이 모여 세계에 우리나라 음악을 알리고 있는 글로벌 국악그룹이라고 소개했다. 그 동안 미국, 영국, 스페인, 일본 등 30여 개국 50개 도시에서 공연 활동을 했으며, 민요, 가요, OST, 팝, 애국가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연주하고 있다. 디즈니사에서 직접 국악 연주 버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화 겨울왕국2 주제가인 'into the unknown'을 국악으로 연주했는데, 조회수가 317만 뷰에 이른다. 퀴는 해외공연에서는 외국인이 잘 아는 곡으로 선정한다. 비틀즈의 렛잇비, 헤이쥬드, 오블라디오블라다와 영화 미션 임파서블 OST, 비발디의 사계-겨울,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 바이러스 등을 노래하고, 연주한다. 2016년 온두라스 단독콘서트에서는 미션 임파서블, 비발디 사계, 아이돌그룹 블랙핑크 노래 등을 국악으로 완벽하게 소화했다. 2021년 아랍 에미리트 건국 5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아랍 에미리트 전통 의상을 입고 아랍 에미리트 국가를 연주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 나라의 국가, 민요, 가요 등을 연주하고 있다. 2019년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는 하이라이트 윤두준 씨와 2PM 준케이와 함께 상록수부대 파병 20주년 기념행사를 다녀왔는데 그 공연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와 합동 공연도 하고 있다. 박 단장은 앞으로 퀴만의 매력과 색깔을 담은 멋진 곡들을 발표해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5. 21.	시청률	0.001

### 【총 평】

‘5천원의 행복을 찾아 밀양으로 왔습니다’편은 5천원만 내면 빵과 커피, 꽃차까지 마실 수 있는 셀프 카페를 운영하는 귀산 10년 차 50대 부부의 삶을 잔잔하게 담아냈다. 특히 ‘귀촌과 귀산의 성공요인이 현지 주민과의 화합’이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부부의 베푸는 사랑, 주민에 봉사하는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났다. ‘기장댁 경미씨’로 불리는 여주인공의 긍정적 마인드와 적극성, 친화력, 시원한 웃음, 주민과 화합 등을 잘 살렸다. 남편은 마을 이장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아내는 노인들이 채취한 청정 먹거리를 판매하는 역할 등이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였다. 자연 속 카페에서 스스로 행복 찾는 법을 터득한 귀촌 부부는 “행복은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해 귀촌희망자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자연을 사랑하고 주민과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꾸밈없는 일상을 다 큐 형식으로 담아내 시청자와 도시민들에게 긍정의 삶을 선사했다.

### 【구성 및 내용】

밀양시 단장면에서 5천 원으로 자연과 함께 빵과 과일, 다양한 꽃차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셀프카페를 운영하는 귀산 10년차 부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남편은 동물가족들의 밥을 챙겨주고 아내는 꽃차밭에서 밭일을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연고도 없는 밀양으로 귀산한지 10년차인 부부는 카페를 연지는 5년이 되었다. 부부가 꾸민 셀프 카페는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공부를 해서 완성시킨 공간이다. 본관부터 야생화 동산, 햇살정원, 돌계단, 키즈존, 나무향기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졌다. 부부는 카페를 조성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다. 부지 임야를 매입할 때부터 대출로 시작했고 이후는 부부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꾸몄다. 아름다운 공간의 저렴한 가격의 카페는 몇 년 사이 자리를 잡아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셀프카페로 요금도 알아서 지불하고 공간도 취향에 따라 알아서 이용한다.

남편은 최근 갯골마을 이장직을 맡아 카페 준비를 끝낸 뒤 마을을 둘러본다. 특히 좁은 길을 넓히는 등 마을에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귀농인 유치 등에 관심이 많다. 아로마테라피에 관심이 많은 아내는 비누를 만들기 위해 주변에서 편백잎, 솔송 등의 재료를 직접 채취한다. 직접 천연제품을 배우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천연재료로만 만든 비누는 손님들이 자주 찾는 제품이다. 이외 천연샴푸, 편백잎 스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부부는 정기적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작업한 말린 고사리, 두릅, 들깨 등을 받아간다.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농산물 판로를 구하기 힘들어 이들 부부는 카페를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포장해 대신 팔아주는 것이다. 손님들은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편하게 농산물을 팔 수 있어 모두한테 좋은 일이다. 귀산한 부부가 마을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동화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5. 22.	시청률	0.059

## 【총 평】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전파 상황과 이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해 집중도를 높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이 한국의 의료 지원을 받는다면 남북관계 회복 계기로 전망했다.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전했다.

‘이슈 텔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와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과거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득력 있게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국제 질서와 원칙에 따른 접근을 예상했다.

## 【구성 및 내용】

북한의 코로나19 확진 심각세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마스크 착용과 약국 시찰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분위기의 심각성을 공개해 시선을 끌었다. 북한의 코로나 유입 경로 및 가능성을 추론하고 북한의 코로나 극복 방법은 격리 및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통제가 될 거라 예상하며 북한 주민의 생활이 힘들어질 것임을 예상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에 발생한 배경으로 최근 중국의 단둥 주민이 상하이로 방문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감염 사례가 밝혀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단둥과 북한을 연결한 기차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고 약국을 시찰하며 인민들이 야심한 시각에 약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방호복, 일회용 장갑, 격리시설 등 모든 것이 부족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비책은 통제하고, 봉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시행할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와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의사를 북한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원만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 텔링’은 북한이 핵에 집착하며 북한이 체제를 이끌어가는 이유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핵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라는 설명이 흥미를 끌었다.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는 갱도에 들어가는 입구만 무너뜨린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5. 22.	시청률	0.015

### 【총 평】

‘민주노조의 마지막 보루 - 원풍모방 노조 파괴 사건’에서는 1972년 민주노조가 출범하게 된 계기부터 1982년 원풍모방 노조가 해산되기 까지 불법으로 자행된 공권력과 노동자의 희생을 현실감 있게 담아냈다. 특히 노조를 붕괴하기 위해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펼친 활동과 노조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조명한 구성이 흡입력을 높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원풍모방 노조 해산과 관련해 그 배후에는 공권력이 개입해 강제 귀향과 해고 조치에 관여했음이 밝혀졌고,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조를 와해시킨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구성 및 내용】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10년 원풍모방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서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신청인들과 관련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신청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원풍모방 노조 파괴 사건은 ‘민주노조의 마지막 보루’ 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우리 현대 노동사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분기점이다. 한국모방은 1972년 차동진 씨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선출되면서 민주노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197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반사회적기업인으로 지목돼 한국모방 사장이 퇴출당하고 회사는 부도가 났다. 노조는 당시 지부장을 회사경영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노조의 회사 경영 참여라는 기업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냈다. 1975년 원풍모방으로 새 출발하고 노조와 회사측은 큰 마찰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원풍모방 노조는 조합원 교육 등을 강화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공권력으로 막은 전두환과 신군부는 이후 노동계 평화조치에 따라 원풍 노조에 대한 본격적인 파괴 공작을 시작했다. 1980년 12월 20여 일간 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된 노조 간부들은 강제로 사표를 쓰고 귀향조치 되었으며, 남자 간부 4명은 삼청교육대에 보내졌다. 신군부는 원풍모방 노동자들이 광주 시민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여 기부를 한 것을 빌미로 삼았는데 이를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엮으려 시도했지만 모금액을 기탁하는 과정에서 윤공희 대주교에게 받은 영수증이 있었기에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에 끝까지 항거했던 노조원들은 2년여에 걸쳐 투쟁을 이어나갔다. 회사와 정부의 합동작전으로 폭력적인 진압이 이어지면서 1983년 1월 원풍모방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양승화 씨의 증언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도 노조를 지켜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단결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증언을 통해 어려움에도 단결했던 노조원들의 저력 그리고 그들의 침해된 인권에 어떤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5. 22.	시청률	0.000

### 【총 평】

‘환경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편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건축 선두주자이며, 미션 이노베이션 챔피언으로 국제적 공인까지 받은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이명주 교수가 출연해 환경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과 친환경 건축의 필요성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에너지를 쓰는 만큼 생산해 에너지 제로화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제로에너지 주택의 필요성과 이점을 일반 가정의 난방비와 비교해 절감효과를 설명한 부분이 설득력을 높였다. 또 주인공이 실제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든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소개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의 모델로서 ‘한국판 뉴딜이 곧 나의 뉴딜’임을 강조했다.

### 【구성 및 내용】

‘환경을 위한 리모델링, 제로에너지 건축’은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이명주 교수를 초대해 국내 국내 제로에너지 주택 및 시범단지, 본인의 성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로에너지 주택의 개념 및 서울시 노원구 이지하우스의 실현, 제로에너지주택으로서의 장점, 제자들과 함께하는 친환경건축 연구, 수상실적 등을 소개했다. 이명주 교수는 에너지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전문가로,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거환경부문 여성 1호 연구개발(R&D) 연구단장’에 선정된 이후 2018년 5월까지 5년 동안 국내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공동주택인 ‘노원 이지하우스’ 모든 과정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존 리모델링이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과 고효율의 기자재를 써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리모델링이 바로 ‘그린 리모델링’이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다양한 에너지 그리드 망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주택의 방식인데 에너지 효율이 낮을수록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난다. 제로에너지 주택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1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와 생산이 동일해지게끔 하는 것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이다.

제로에너지 주택을 지향하는 에너지 비용이 최소화된 단지가 현재 서울시 노원구 이지하우스다. 집에 패널을 설치하고 열을 이용하여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그리드망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121세대가 거주 중으로 거주자는 하루 1300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하는데 주변 아파트 대비 70~80%의 난방비가 절감되는 수준이다.

이명주 교수는 친환경건축을 위해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 제로에너지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제자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러서지 않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즐겁다며, 최근에는 병원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5. 22.	시청률	0.000

### 【총 평】

‘새 정부 출범, 5년을 그리다’편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새로운 국정과제와 당면현안을 집중 조명해 시의성을 살렸고, 정책홍보 측면에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와 과제는 무엇인지, 물가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 손실보상금 문제, 종부세 변화 등을 짚어보았다. 특히 실태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새 정부의 대응 방침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또 시장 주도형, 민간 주도형으로 요약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와 국정과제를 소개하고 은둔청년 지원정책 등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모델로 제시한 구성이 돋보였다. 이 밖에 여소야대 정치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정치권의 진영 탈피와 여야 소통,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전문가 인터뷰가 공감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새 정부 출범, 5년을 그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따른 새 정부의 출범과 향후 국정기조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과 참석한 시민의 소감, 용산집무실 시대와 청와대의 개방, 물가급등 대책, 코로나 손실보상, 경제성장, 은둔형 청년, 부동산시장과 공정 및 상식, 주52시간 근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11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로 조사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재정, 통화당국이 회동을 가졌고 먹거리 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공급하고 밀가루 업체의 가격 상승분 70%는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또,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외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방산 등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시대 7개 분야 산업을 집중 성장시킬 예정이다. 성장방식은 정부주도가 아닌 자유시장 체제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 경제성장의 기조다.

이번 대선에서 윤대통령이 가장 중시한 것은 공정과 정의였다.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가치는 시대적 요구이며 사회가 통합으로 가는 중요한 아젠다다.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선부르게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주의 깊게 행해야 할 것이다.

주 2시간제가 주는 장시간 노동자 감소효과는 분명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하다보니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에 선택근로제를 도입해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